

엔터테인먼트

Entertainment

박진영-美 제작사 공동
10대 소녀가수 음반 제작

비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이하 JYP)는 21일 박진영(34)이 이끄는 미국 JYP USA 법인과 미국 유명 힙합 프로듀서 릴 존(Lil Jon·35)이 이끄



〈박진영〉 〈릴 존〉

는 BME레코딩이 공동으로 JYP 소속 10대 여자 신인의 음반제작·프로듀싱·마케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주인공은 1991년 출생 한국 소녀 민(Min·본명 이민영)으로, 10대에 당당히 미국 시장에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릴 존은 민의 데모 영상을 본 후 박진영에게 공동작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은 10세 때인 2001년 춤과 노래 실력을 인정받아 JYP 연습생으로 발탁됐으며 2년간 국내에서 트레이닝을 받았다.

★ 연예계 스타들 2006년 성적표

최고의 해

백지영·이준기·박명수



고현정

박명수

백지영

이준기

수많은 스타들이 떴다 사라지는 게 연예계다. 올 한해 '스타'들의 성적표는 어땠을까.

▲행복했던 2006년

올 한해 가장 빛난 별은 '왕의 남자'로 떠오른 이준기다. 1천만 관객을 동원하며 '국민영화'의 명성을 얻은 '왕의 남자'에서 여장 남자 역을 맡았던 이준기는 각종 영화제의 신인상을 수상하고 수십만명의 팬클럽 회원을 거느린 '스타'가 됐다.

'무한도전' '놀러와'의 패널로, MBC FM '편린 라디오'의 진행자로 '제8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박명수와 최고의 몸값을 자랑하며 방송 3사 오락프로그램을 섭렵하고 있는 유재석 역시 최고의 한해를 보냈다. 두 사람은 현재 열렬한 연예중이어서 더욱 화제가 되기도 했다.

올 한해 최고의 유쾌어 중 하나인 '운전해~ 어서~'의 개그우먼 김미라, '마백이' 정종철은 코미디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이혼 후 연예계에 복귀한 고현정의 성적표도 좋았다. 생애 첫 영화인 '해변의 여인'에서 홍상수 감독과 호흡을 맞춘 고현정은 평단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성공적인 데뷔를 했고 이어 출연한 MBC 드라마 '여우야 뭐하니'에서도 연하남 천정명과 알콩달콩 사랑을 엮어가는 고병희 역할을 맡아 열연했다.

영화감독 중에서는 '괴물'의 봉준호, '왕의 남자' '라디오 스타'의 이준익, '타짜'의 최동훈이 '대박 감독'으로 이름을 올렸다. '타짜'는 배우 김혜수와 김윤석에게도 보물같은 영화였다. 김혜수는 이 작품으로 청룡영화상, 대한민국영화상 등 각종 영화제의 여우주연상을 휩쓸며 '새로운 발견'이라는 평을 들었고 '아귀'

최악의 해

권상우·문근영·김하늘



이성재

김하늘

권상우

문근영

역으로 출연했던 김윤석은 '2006 최고의 조연'이라는 평을 들었다.

비디오 파문으로 팬들의 뇌리에서 사라진 듯 했던 백지영은 화려하게 컴백했다. 자신의 트레이드 마크였던 섹시한 이미지의 댄스곡 대신 발라드 '사랑 안해'를 들고 나온 백지영은 공중파 방송 1위는 물론 각종 차트를 석권하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요즘은 아나운서도 스타가 되는 시대다. 강수정·노현정 등이 뜬 데 이어 올해는 MBC 김성주 아나운서가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월드컵 경기 중계에서 진가를 발휘한 그는 이후 '황금어장' 등에 출연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고 있다.

▲고달팠던 2006년

'한류 4대 천왕'으로 꼽히는 권상우는 올 한해 조직 폭력배 연루설, 섹스 비디오 관련설 등 각종 루머의 주인공이 되면서 힘든 한해를 보냈다.

대학입사에서 자기 추천 전형으로 성균관대 국문학과에 진학해 여분의 못매를 맞았던 '국민 여동생' 문근영 역시 올 한해가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다. 입학 후 학교 수업에만 매진하다 처음 성인연기에 도전한 '사랑 따윈 필요 없어' 역시 흥행에 실패하면서 쓴 맛을 봐야 했다.

브라운관에 복귀한 배우들의 흥행 성적도 저조했다. '거짓말' 이후 오랜만에 드라마로 돌아온 '천국보다 낯선'의 이성재, '90일, 사랑할 시간'의 김하늘 등은 4~5%의 시청률을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채림, 그녀가 돌아온다 KBS 드라마 '달자의 봄'으로



채림이 노처녀로 분해 오랜만에 브라운관에 돌아온다. 그는 내년 1월3일 첫 방송되는 KBS 2TV 수목드라마 '달자의 봄'(극본 강은경, 연출 이재상)에서 여주인공 오달자 역을 맡았다.

이로써 그는 2004년 11월 종영된 KBS 2TV 드라마 '오 필승 봉순영' 이후 2년여 만에 국내 시청자들을 만나게 됐다. 이 작품은 그가 지난 3월 가수 이승환과 이혼한 뒤 출연하는 첫 작품이기도 하다.

채림은 19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2년 만의 드라마인 만큼 남

다른 각도로 일하고 있다"면서 "여자가 사랑을 꿈꾸는 것은 30대 노처녀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보여줄 생각"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밝은 목소리로 새 작품에 대한 각오를 전하던 그는 이혼의 아픔과 관련된 질문에는 답답하게 대답했다. 그는 "많이 공감해하실 텐데 아직 나조차도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가 힘들다"고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음을 내비치며 "잘 지내고 있으니 많이 걱정 안 해도 될 듯하다"고 덧붙였다. '달자의 봄'은 일에는 프로지만 연애에는

속삭인 서른세 살 노처녀 오달자의 일과 사랑을 그린 24부작 로맨틱 코미디 드라마.

채림은 "30대 노처녀를 맡는 것이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오랜만이고 한번도 해보지 못한 캐릭터여서 내게는 새로운 도전"이라며 "출연 결정 후 30대 여성들을 만나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많이 들었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어 공부를 1년 정도 했는데 예전부터 배우려고 생각했던 것"이라며 "간단한 인사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정도"라고 소개했다.

10 BOX OFFICE

영화 (단위:명)

순위	제목	서울관객	전국누계
1	미녀는 괴로워	19만5천200	92만4천400
2	로맨틱 홀리데이	13만3천	45만2천
3	Mr. 로빈 꼬시기	4만1천600	65만1천500
4	싸이보그지만 괜찮아	4만	70만4천
5	조용한 세상	3만900	14만800
6	해바리꽃	2만5천500	147만6천200
7	저스트 프렌드	2만1천500	23만1천300
8	판의 미로-오피리아와 세 개의 열쇠	1만5천100	51만4천500
9	팀버튼의 크리스마스 악몽 3D	6천200	4만6천400
10	쏘우 3	3천300	42만6천200

(자료제공:필름 2.0)

TV (단위:%)

순위	제목	방송국	시청률
1	소문난 칠공주	KBS2	44.6
2	주몽	MBC	44.0
3	열아홉 순정	KBS1	37.8
4	황진이	KBS2	22.9
5	도하이시인계임종계서 (대한민국:이리크)	KBS2	21.7
6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 일이	SBS	21.7
7	대조영	KBS1	20.9
8	무한도전	MBC	20.8
9	연개소문	SBS	20.7
10	개그콘서트	KBS2	20.7

(자료제공:TNS리서치)

비디오

순위	제목	장르
1	기문의 부활	코미디
2	괴물	드라마
3	전혹한 출근	액션
4	BB프로젝트	액션
5	라디오 스타	드라마
6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드라마
7	캐리비안의 해적: 양자의 함	액션
8	마이애미 비이스	액션
9	천하장사 마돈나	코미디
10	수퍼맨 리턴즈	SF

(자료제공:캐네타운)

가요

순위	제목	가수
1	비림만 비림만	김종국&SG워너비
2	사랑가	SG워너비
3	그녀가 울고 있는데요	가비 엔제이
4	성시경	성시경
5	소리쳐	이승철
6	머스트 해브 러브	SG워너비&브라운아이즈걸스
7	까만 인경	이류
8	고마워요	최재훈
9	사랑이 다 그런게니까	웍스
10	올 아이 월드 포 크리스마스 이즈 유	마리아어 캐리

(자료제공:빅스뮤직)

2007년 중국 명문대학 **정기** 입학반 모집

특수할 입학준비 2007년 10월말까지 중국대학 입학

3학기 입학준비 2008년 1학기 편입사 자격

중국대학 입학 심의회

www.chinaedu.com.cn

전화문의 333-9582

토익 만점 기록 11회 대행진!

목표점수까지 무한반복수강!

880점 탄탄반 600점 목표반

860점 목표반 초등중학반

동아외국어학원

전화문의 082-222-6253